

10·25 재보선 한달 앞으로

각당 전략과 의미

대선 길목 '정계개편 주도권 잡기' 사활

우리, 인물중심 승부 한나라, 인천에 총력 민주, 호남텃밭 사수

다음달 25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은 이번주 내에 후보자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막판 후보 검증 작업에 나서고 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25 재·보궐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남동읍과 해남·진도, 기초단체장을 뽑는 신안, 화순, 장남을 비롯, 광역·기초의원까지 포함해 모두 8곳이다.

선관위는 재·보선 지역이 확정되는 오는 30일까지 기초의원 선거구가 2곳 정도 추가돼 모두 10곳 인콰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 남동 읍은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수도권 민심의 흐름을 살핀다는 차원에서, 해남·진도는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간 호남 민심잡기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이번 재·보궐선거는 인물론 중심으로 선거전을 펼친다는 방침 아래 29일 전후로 후보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해남·진도에서 다자구도가 형성된다면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인천 남동 읍도 후보만 잘 세운다면 해북만 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내달 1일 귀국하는 정동영 전 의장의 인천 남동을 출마설도 나오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1일 정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 선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2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 인천 남동읍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해남·진도의 경우 '불모지'인 만큼 당선은 어렵지만 향

후 호남 거점 마련을 위해 최선의 후보를 낼 계획이다.

이경재 공천심사위원장은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능력이 검증된 후보를 공천해 당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호남 지역 선거구의 경우에도 최소한 당의 거점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병을 제외한 모든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겠다는 방침 아래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해남·진도 보궐선거가 잘 풀릴

경우 추후 정국에서 치명적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최선의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31 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호남 민심은 우리당이 아닌 민주당을 선택했음을 확인했지만 이번에 왜기를 박겠다"며 "재·보선을 통해 우리당과의 호남 경쟁을 마무리 짓고 연발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 두 곳 가운데 최소한 한 군데는 후보자를 내고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25 재·보궐선거가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전남에서는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 신안, 화순군수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재·보선에는 약 40여명의 입지자들이 출마표를 던졌다. 사진은 지난 5·31 지방선거 모 정당 유세장에 들린 청중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신안군수, 민주당 쓸림현상 극심 최前화순부군수 공천여부 관심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고갑호 전 군수가 지난 6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고향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만큼 후보군의 민주당 쓸림 현상이 뚜렷하다. 다른 정당에서는 아직까지 거론되는 후보 마저 없을 정도다.

민주당 후보 심사에서는 최창원 전 화순부군수의 공천 여부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제5차 공천후보자자

특별위원회회를 열어 최 전 부군수 후보로 결정했으나 이후 일부 후보가 공직자 신분으로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점을 문제삼고 나서자 중앙위에서 이를 유보하고 26~27일째 후보를 확정키로 했다.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후보를 내졌다가 다시 철회한 데 대해 지역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최 전 부군수도 22일 전남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최 전 부군수는 "그동안 공직자 신분인 점이 논란이 왜 온 만큼 이를 벗는 것이 당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최 전 부군수 외에도 강성만 전 한화갑 대표 보좌관, 고관술 전 신안군회의회장, 김관선 전 광주시의회 부위원장, 김청수 우리소금살리기 상임대표, 박우람 전 하남부시장, 최영수 전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장 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또한 권영택 전 전남도의원과 이춘식 전 광주시 건설관리본부장, 최신용 전 신안군회의회장 등 3명은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잡이에 나섰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정씨 출마 여부 최대 관심

(이정일 前의원 부인)

■ 해남·진도 보선 누가 뛰나

지난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이정일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해남·진도에선 예비후보 등록자 7명을 포함 20명에 가까운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각각 전윤철 감사위원장,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의 영입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나 이들 카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정일 전 의원의 부인인 정영희씨의 출마 여부가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의 조지를 확보하고 있는 정씨의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주당 공천 여부. 이 전 의원 측은 내심 무난한 공천을 기대하고 있지만 공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씨 출마 여부 최대 관심

여기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당내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 전 의원이 정치적 논란 여지가 있는 사건이 아닌 '법률 도청'이라는 비도덕적 행위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인인 정씨의 공천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여기에 정씨가 국회의원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 및 정치적 경륜이 검증되지 않은데

정씨 출마 여부 최대 관심

호 전 의원 등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예비 후보들은 당이 정영희 카드를 꺼내기 어렵다고 보고 중앙당 인사들과 활발한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는 이들 외에도 김다섭 변호사, 김필용 전 중앙당 기초위원장, 김홍길 변호사, 민병록 효산건설(주) 대표, 민상금 전 중앙당연수원 부원장, 양동주 북태평양문제연구소장, 이

고 있고 박양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거명된다. 중앙당은 전략 공천이 가능한 중량감 있는 후보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추후 정국에 대비, 해남·진도를 무공천 지역으로 하자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저조한 당 지지도로 인해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추후 민주당과 통합 논의 등에 대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 전 의원 부인의 공천 여부 등 민주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 후보 공천신청을 마감하지만 최종 후보는 민주당 공천이 가닥 잡힌 이후 선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 선거 공모를 마감한 한나라당에는 광복군 전 21세기 농어촌발전연구회장, 설철호 전 전남도당 홍보위원장, 최응국 전 미래농어촌경제연구회장 등 3명이 지원했다.

민주 공천 13명 신청... 한나라도 3명 지원

다 공천을 신청한 12명의 예비 후보들이 정영희씨가 공천될 경우,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씨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도 민주당에게 부담되기는 마찬가지. 이 전 의원의 조지를 기반으로 한 정씨의 파괴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열린우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채일병 전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총장과 김봉석 전 전남도의원, 장전형 전 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해 등 13명이 공개 또는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 공천자는 오는 26일이나 27일 발표 예정이지만 경우에 따라 1~2일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후보 기근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출신 1~2명이 공천을 타진하

무소속 출마판 판세 영향 미칠듯
후보 기근 우리당은 무공천 논의

화순군수, 민주당 공천 8명 지원 부인對 동생 前군수 대리전 될까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3개월도 채 안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형준 전 군수가 재판 도중 지난 18일자로 사직함에 따라 보궐선거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최근 공천 신청을 마감한 민주당에는 김상규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배동기 전 화순부군수, 양경수 21세기 화순미래연구회회장, 임호환 전 농업기반공사 전남본부장, 전완준 성안그룹 회장, 정완기 민주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정치환 전 무안군수, 조장현 전 광주매일 상무 등 8명이 지원했다.

최종 후보는 공투위 논의 등을 거쳐 오는 27일까지 선정된다.

이들 가운데 공무원 출신들은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이 군수를 맡아야 한다며 상호 연대를 모색하

고 있다.

5·3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전 전 군수와 맞대결을 펼치다 1만여표차로 낙선한 이영남 전 군수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전형준 전 군수의 동생인 전완준 회장과 임호경 전 군수의 부인인 이영남 전 군수가 동시 출마할 경우 전직 군수들의 대리전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형준·임호경 전 군수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로 군정에 부담을 줬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시선이 굵지 않은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지켜보고 후보를 낼 것인지,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2006 Kwangju International Machinery, Mold, Automation Industry Fair 2006
광주국제기계·금형·자동화산업전
| 관람 안내 |
2006. 9. 27 - 30 | KOJ Center
[전시부지] 15개관 150개사 350부스
[주최부지] 4개관 4개부지 4개사 4개부스
GIMMA 사무국 06-2601-1111 06-2601-1112 06-2601-1113 06-2601-1114